

타이완 영화 <메리 마이 데드 바다>의 재현 방식으로 탐색한 수용 가능한 이상과 삭제된 현실

진성희*

목 차

1.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타이완 영화들
2. 이성애자 인간과 동성애자 귀신의 결혼:
우회적 서술로 열고 잃은 것
3. 꽃병과 괴물 사이: 편향된 여성 캐릭터
4. 섹슈얼리티 재현의 탈영도화를 기대하며

국문초록

영화가 타인의 성 정체성에 관한 대중의 부족한 성인지 의식을 지적하고 점차 연대와 평등의 자세를 부각하고 있는 시대에 등장한 <메리 마이 데드 바다>는 특별함을 지닌 타이완 영화다. 남남 커플을 재현하는 새로운 방식과 기존의 동성애 코드를 내재한 영화와 차별되는 방식으로 <메리 마이 데드 바다>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타인의 고유한 성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담았다. 본 연구에서는 <메리 마이 데드 바다>의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결합, 동성애자의 가족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가 수용 가능한 이상과 배제된 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했다.

영화가 대중문화의 장에서 현실을 향한 엄숙한 논의와 성찰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전략으로 개성적인 영토를 확보하고 더 넓은 관객들과 소통하려 하는가 또한 중요한 사항일 터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리 마이 데드 바다>의 장르 소구와 우회적 서술 방식은 퀴어 영화에 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거두고 관심을 견인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재현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중점 부교수

기제는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재차 소외시키고, 여성을 남남 커플을 공격하는 괴물로만 묘사해 버리는 문제를 낳았다. 따라서 영화가 대중의 관념을 교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어도 재현되는 대상에 관한 진솔한 시각과 첨예한 사유를 담지 않는다면 예술로서의 진정성이 수반할 수 없음을 <메리 마이 테드 바디>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영화 <메리 마이 테드 바디>, 동성애 코드, 퀴어 영화, 섹슈얼리티, 괴물이 된 여성, 재현의 문제, 진정성의 예술

1.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타이완 영화들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는 흔히 세계 혹은 한 국가의 영화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영화 사조 혹은 특정 감독과 작품으로부터 그 탐색의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그것이 타이완 영화의 경우라면 1980년대 중반 시작되어 1990년대 종결된 타이완 뉴웨이브(新浪潮) 운동으로부터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타이완 영화계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겠다는 명명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에드워드 양(楊德昌)과 허우샤오시엔(侯孝賢), 차이밍량(蔡明亮)을 비롯한 일군의 감독들은 기존의 영화 전통을 거부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전통을 만들었다. 이후 2차 뉴웨이브 감독군으로 인지할 수 있는 리안(李安)은 할리우드로 나아가 그곳에서 동양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타이완 뉴웨이브파의 자국 영화를 향한 깊은 성찰과 사유의 흔적들은 안타깝게도 관객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화라는 매체가 필연적으로 자본과의 친연성 속에서 탄생하는 바 심각한 영화만 걸린 타이완 극장가를 외면하는 대중의 선택 속에서 타이완 뉴웨이브는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타이완 뉴웨이브 운동에서 예술로서의 영화의 존속 가능성을 되찾은 세계의 평단과 연구자 또한 타이완 영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타이완 영화는 2000년대 후반 무렵 <말할 수 없는 비밀, 不能說的秘密, Secret>(2007), <청설, 聽說, Hear me>(2009),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那些年, 我們一起追的女孩, You are the Apple of My Eye>(2011) 등 청춘들의 시간을 초월하는 판타지 로맨스에 의해 되살아났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타이완의 드라마들이 P2P를 통해 아시아 대중에게 공유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타이완 로맨스물에 대한 기시감은 소위 ‘청춘영화’들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타이완 영화에 관한 비평·연구계의 대개의 관심은 사실상 뉴웨이브와 시간에 미끄러지는 청춘물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나마도 타이완 영화에 대한 다른 관심은 ‘뉴웨이브 이후’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뉴웨이브 후 청춘 장르의 흥기와 같이 ‘단절’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렇지만 단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뉴웨이브의 명맥을 가까스로 계승하는 듯한 영화들과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어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영화들이 명백히 존재해 왔다.

예컨대 타이완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금마장 영화제가 허우샤오시엔, 웨이더성(魏德聖)을 비롯한 20명의 감독에게 타이완의 정체성에 관한 필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탄생한 유니버스 영화 <10+10>(2011)은 신구 감독들이 추구하는 갖가지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또한 <조니를 찾아서, Missing Johnny>(2017)는 허우샤오시엔이 제작에 참여하고 그의 후예로 불린다는 후양시 감독의 작품으로 서정성이 짙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수자오렌(許肇任)의 <17세의 꿈, Together>(2012)과 양야체(楊雅喆)의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2017)과 같은 영화는 동시대의 청춘영화와 같은 면모를 지니면서도 장르 배합으로 타이완 영화의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¹⁾

1) 김성찬, 「[기획]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추천작 소개③, ‘뉴웨이브 이후 대만 영화의 기수들’ 초청전」(『씨네 21』 기사,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1553 2024.7.1. 검색)

상술한 배경하에 또 눈여겨 볼만한 것은 LGBT 그중에서도 남남 동성애를 다룬 퀴어 영화들이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타이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듯 동성 사이의 사랑과 현실의 장벽에 관한 영화들이 연이어 만들어졌다.²⁾ 게이 아들과 미국인 남성의 사랑을 어렵게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담은 퀴어 장르와 가족 드라마가 결합한 리안의 <결혼피로연, 喜宴>(1993)으로부터 시작해 차이밍량의 <애정만세, 愛情萬歲>(1994)는 현대 사회의 우울한 정서를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통해 담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도 알려진 레스티 첸(陳正道, Leste Chen)의 <영원한 여름, 盛夏光年, Eternal Summer>(2006)과 류광후이(柳廣輝)의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 刻在你心底的名字, Your Name Engraved Herein>(2020)은 교복 입은 소년들 사이의 사랑과 성장을 그려내며 입소문을 타고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작품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국내에도 개봉된 청웨이하오(程偉豪) 감독의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원제: 나와 귀신이 가족이 된 일에 대해서 關於我和鬼變成家人的那件事, Marry My Dead Body>(2022)는 한국 관객들에게 소구 되는 타이완 영화가 청춘 로맨스, 타이완 현대사의 비극을 그려낸 역사영화, 퀴어 장르와 결합한 가족 드라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한국 대중에게 <메리 마이 데드 바디>(이하 ‘메마데바’)는 드라마와 영화 <상견니, 想見你, Someday or One Day>(2019)로 아시아의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허광한(許光漢)의 출연으로 흥미를 끈 영화이다. 더하여 죽은 동성 귀신과의 영혼결혼식³⁾ 통해 부부가 된 사실상 마초 남성에게 가까웠던 한 인물이 타인과 사회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폭넓게 이해해 간다는 내용을 담은 장르의 중첩으로 영화적 재미를

2) 타이완은 2019년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3) 유교문화권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연인들을 위해 행해지던 풍습, 죽은 이의 머리카락 혹은 손톱 등이 담긴 빨간 봉투를 주는 자는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 여겨 반강제로 영혼결혼식을 올리곤 했다.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고 영혼결혼식을 한 산 자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는 설이 있기도 한데 영화는 이러한 소재를 활용해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추구하기도 했다. 기실 동성 사이의 사랑을 영화에서 그려내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시대의 거울이라 하는 드라마에서도 거침없이 다루는 소재로 자리매김했고 세계영화사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동성애를 재현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중은 퀴어 장르를 특별하게 받아들인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은 스크린 외부에서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회는 성적 소수자를 정상으로 치부하지 않거나 여러 시선을 경유하여 굴절된 채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마테바>는 유머 코드와 휴머니즘을 통과하며 동성애자와 그들 주변의 인물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담았다는 점에서 참신성을 확보한다. 동성애자의 삶을 전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관객은 가족 간의 화해와 이성애자가 편견을 깨뜨리는 과정을 보며 영화의 서사를 긍정할 수 있다. <메마테바>의 “두 남자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프레임’을 벗고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이라며 “성별과 성적 취향을 떠나 사랑 앞에선 다 똑같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청웨이하오 감독의 언급처럼 영화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⁴⁾ 감독은 동성애에 관한 점 외에도 억울한 사고로 죽은 마오마오(마오방위: 毛邦羽, 별칭 毛毛, 林柏宏 분)가 자연과 동물과 같은 환경을 살피는 의식도 담아내며 타이완 현 젊은이의 초상을 재현했다.

이에 <메마테바>는 코미디, 가족 드라마와 같은 장르적 속성에 기대 동성애, 개인의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안전하게 담는 우회로를 택한 영화이다. 웃고 울며 이야기와 사건의 진행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 하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영화의 미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적 서술은 문제를 낳기도 했다. 장르의 관습적 반복과 변용 속에서 감독이 드러내고자 했던 본질적 문제, 감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명백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퇴색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 <메마테바>의 영화적 성취는 어떠한 차원에서

4) 이영재, 「편견에 경종 울리는 코믹 액션...영화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2160400005> 2024.7.1. 검색)

이루어진 것인가를 살펴보고 청웨이하오의 서사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 문화의 장에서 개성적인 지대를 확보하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메마테바>는 분명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새롭고 다각적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의제를 드러내고 있다. 동성애자의 현실과 그들을 인정하는 가족의 모습을 드라마적으로 재현한 감독의 선택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화의 태도와 서술 방식이 얼마나 인간을 향한 진정성을 내재하는가, 영화의 표현이 흑여 진실을 가리지는 않는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중점을 두고 <메마테바>의 서사 특성과 영화에서 재현된 세계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이성애자 인간과 동성애자 귀신의 결혼: 우회적 서술로 얻고 잃은 것

<메마테바>에는 이성애자이자 경찰인 우명한(吳明翰, 허광한 분)과 동성애자 마오마오의 귀신이 등장한다. 사건 현장을 살피다 우명한은 우연히 죽은 자의 머리카락이 담긴 붉은 봉투를 줍는다. 이 붉은 봉투는 영혼결혼식의 초대장을 의미하며 이를 줍는 사람은 죽은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타이완의 풍습에 따라 우명한은 동성애자 귀신과 영혼결혼식을 올린다. 그날 이후 우명한과 귀신 마오마오는 함께 하게 되고 우명한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애인에게 배신당하며 억울하게 죽은 마오마오의 한을 풀어주려 한다. 마오마오 또한 게이 범죄자를 체포하다 혐오적 발언을 해 파출소로 진출된 형사 우명한이 마약 수사 사건을 해결하여 경찰서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이 과정에서 두 남자는 진실로 연대하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폭력을 쓰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던 마초 우명한은 동성애 인정과 여성 차별,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에는 무감각했다. 그러한 우명한에게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던 마오마오는 그에게 ‘지구온난화를 위해 기부할

것’, ‘텀블러를 쓸 것’,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울 것’, ‘유기건을 입양할 것’ 등 타이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관해 말한다. 이와 같은 인물의 묘사는 타이완 젊은 세대의 기호와 관심을 심분 반영하려 한 감독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⁵⁾ 청웨이하오의 이 같은 재현 방식으로 마오마오라는 귀신/인물은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그는 귀신이 되어서도 사회와 환경, 타인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거나 현실에서 좌절하던 앞선 퀴어 영화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캐릭터는 아니다. 이에 관객은 거부감을 거두고 마오마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다.

더불어 감독은 타이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묘사한다. 마오마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던 아버지와는 달리 손자의 정체성을 알고 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남자를 잡아 영혼결혼식까지 열어준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들은 타이완 사회의 너그러움을 상징한다.⁶⁾ 우밍한은 마오마오의 도움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오마오 아버지의 자식을 위한 진심도 알게 되고 그 마음은 마오마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차별적인 언행을 습관적으로 일삼아 오던 우밍한의 다각적 변화는 영화가 추구하려 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이처럼 <메마데바>는 이성애자 남성과 동성애자 귀신의 영혼결혼식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회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만한 동성애자의 현실을 상상한다. 사실 <메마데바>는 동성애자의 삶을 전면에 드러낸 것이 아닌 동성애 코드를 영혼결혼식에 기대 서사에 이식하고 대중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도

5) 청 감독은 영화 속 인물에 관해 “대만에도 마오마오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동물권이나 환경 문제에도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하는 세 세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자연, 「[인터뷰]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청웨이하오 감독, 새 세대의 출현을 포착하다」(『씨네 21』 기사,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2809 2024.7.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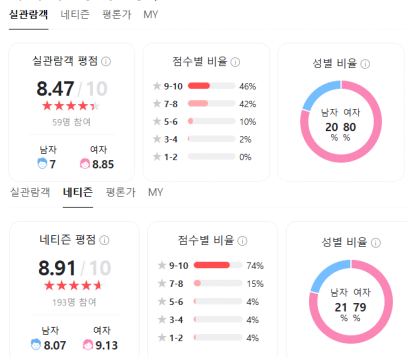
6) “정책과 법규에 따라 사회적 인식은 극적으로 변한다. 대만에서 연세가 높은 분들도 이제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와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 주5)의 기사 참고.

록 했다. 코믹, 스릴러, 가족 드라마는 영화의 휴머니즘적 세계관이 유려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장르들이다. 동성애자이나 이성애자이나 특징의 전개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인간 사이의 문제 발생과 타협, 해결을 나열하는 것에 치중한 <메마테바>는 관객이 영화가 추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휩쓸리도록 한다. 그러면서 <메마테바>의 새로운 세계는 부담스럽지 않게 대중에게 이입된다.

그렇지만 정공법을 피한 우회를 통한 서사는 오해와 오인을 낳을 소지 또한 다분히 갖고 있다.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적 견해는 ‘성소수자의 삶과 분위기가 가볍게 다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네티즌은 ‘여자 관객들을 위한 영화라 느껴진다. 허광한의 노출 장면이 많고 그가 빙의되어 있을 때 추는 봉춤 또한 희화적이다.’라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 관객의 경우만 보더라도 8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점 부여 또한 여성이 높았다.⁷⁾

그간 전형적 이성애 로맨스에서 탈피한 남자 배우들은 여성 관객들의 시각적 쾌락 욕구를 충족시켜 오기도 했다. 서구의 <브로크백 마운틴, Brokeback Mountain>(2006)에서 근래의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Call Me by Your Name>(2018)과 한국의 <왕의 남자>(2005)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Antique>(2008), <쌍화점>(2008) 같은 영화들 및 중화권의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까지의 퀴어 영화들은 표면적이나 생산 전략으로도 여성 관객들의

7) 네이버 영화 평점:



‘보는 즐거움’을 만족시키고 있다.⁸⁾

허광환과 임백평이라는 중화권의 스타를 향한 관심으로 <메마테바>를 접하게 되었다는 다수 여성 관객의 기호를 무시할 수 없을 터 이러한 차원에서 영화는 ‘성 상품화’ 논란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수려한 외모를 가진 동성애자의 판타지적 재현이 불편하다는 것은 쿼어 영화에 관한 찬반론을 막론하고 공유되고 있는 논의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복잡한 현실을 가리고 동성 사이의 성애를 부각하거나 꽃미남들의 스크루볼 코미디처럼 묘사했다는 점은 재현 대상이 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약칭 PC)’⁹⁾ 주의를 내재한 이성애자들에게도 반감을 살만한 사항이다.

타이완의 상황은 좀 낫더라도 동양의 보수적인 관객들을 의식한 영화가 우회적 서술을 통해 문화장에 안전하게 진입하고 그로 인식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메마테바>가 동성애자들의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려 한 것일까의 논의는 되짚어 봐야 한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일상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묘사하는 작업은 여전히 실험적인 일이긴 한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할 때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대중의 기호를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진평(關錦鵬)의 <란위, 藍宇>(2001)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지할 만한 영화이다. 80년대 중반 베이징의 대학생 란위는 사업가 한동에게 몸을 팔며 자신의 동성애적

8) 이형숙, 「동성애 영화에서의 ‘보는 즐거움’의 정치학: <브로크백 마운틴>,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쌍화점>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0집, 2009, p. 433 참조

9) ‘정치적 올바름’ 주의를 언어나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가리키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인종적, 성적, 문화적, 신체적 소수자들을 폄하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기존의 언어를 대체할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교육 과정에서 읽히는 정전(canon) 리스트를 수정해 나가는 것,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타자들을 각종 문화생산물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 등이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줄고, 「‘정치적 올바름’ 주위와 변종 MCU의 탄생—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65집, 2021, p. 202 참고

성향을 알게 된다. 한동을 사랑하게 된 란위는 그의 배신에 절망하고 천안문 사건이 발발하자 시위에 가담한다. 한동은 란위를 걱정하며 천안문을 떠나지 못하고 둘은 재회하나 또 다른 현실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란위>의 온도는 <메마테바>를 비롯해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과 같은 퀴어 영화들과 다르다. 가장 명확히 차별되는 부분은 동성애자의 삶을 이해하겠다는 영화에서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메마테바>의 마오마오는 동성애는 코믹하게 처리된다. 애인과의 정사를 담은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지우기 위해 우밍한을 이용하고 버튼을 잘못 눌러 영상이 플레이되자 울리는 정사 소리에 당황하는 우밍한과 마오마오의 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애인에게 울며 전화하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마오마오의 상황과 마오마오가 빙의된 우밍한이 발가벗은 채 몸매를 자랑하며 거리로 나선 신에서 희화화된 남성성은 마치 동성애자의 전유물처럼 느껴진다. 동성애자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가 생산된다면 이는 사회의 주류 의식에 저항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의 삶을 재착취하고 훼손할 수 있다.

더하여 동성애자가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로 등장하는 것 또한 그들에 대한 인식을 고정화할 수 있다. <메마테바> 속 마오마오와 우밍한, 마오마오의 전 애인과 전 애인의 애인으로 등장한 남성과 같이 동성애와 관련한 인물들은 모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 경찰서의 선후배 형사들, 마약 조직의 두목, 마오마오의 아버지를 비롯해 할머니까지 이성애자들은 모두 평범한 외양을 가졌다. 영화의 디제시스(diegesis) 안에서 동성애자인 추남이 등장하지 않는 한 남성 동성애자들은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다는 공식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¹⁰⁾ 이 역시 동성애자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감소시키려 한 시도의 일환이자 상업영화의 주인공은 우월한 외양의 대중적 스타였다는 점을 감안하고라도, 주변부에 존재하는 성적 소수자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

10) 주8)의 글, p. 449 참조

하고 그들은 용인해도 그 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메마데바>는 이성애자들의 기준에서 그들을 수용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동성애자들을 일관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반드시 대중의 이해를 돕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이차적 억압 장치가 될 수 있다.

퀴어 영화들을 둘러싼 담론의 초점이 정치적 올바름에 기초해 동성애 혐오 시선 유무나 동성애자 인권 향상 여부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¹¹⁾ 많은 퀴어 영화의 주인공들이 성차를 지닌 존재이지만 개개의 역사를 지닌 인간으로서 다양한 사회 속 관계망 안에 있는 개인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현의 진정성은 어떻게 피할 수 있다. 통용되는 장르의 관습과 문법에서 탈피해 재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식과 작품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다. ‘자생성’(spontaneity)이라는 개념에 기대본다면¹²⁾ 그것은 감독 자신이 상상을 그려낼 영화 기제를 선택하고 미학적으로 구현하는 자유로운 의식과 활발한 사유의 결과일 것이다. 이에 재현하는 자의 진정성은 인간 내면과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와 결부되고 영화의 형식과 기제는 감독의 이러한 작업을 구체화하는 도구일 것이다.

3. 꽃병과 괴물 사이: 편향된 여성 캐릭터

영화 <메마데바>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펼쳐가며 포괄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관해 말하려 했다. 이성애자 우밍한이 동성애자 마오마오 귀신의

11) 김경태는 동성애자라는 집단적 정체성으로 소환된 영화 속 인물들이 동성애 규범성(homonormativity)을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퀴어 영화들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김경태, 「야오이를 전유한 동아시아 남성 동성애 영화 재고: <꽃보다 게이>, <열일곱 살의 하늘>, <서양골동양과자점 엔티크>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제19집, 2011, p. 13 참조

12) 최상민, 「대중의 욕망과 드라마적 재현 - 김수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 『드라마연구』 제36호, 2012, p. 205 참고

삶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와 연대하는 것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인 복잡 다단한 삶의 문제들도 ‘인간적 유대’가 발휘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 그러나 <메마테바>에는 발전적이고 유연한 남성 인물들과 차별된 한계적 캐릭터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명한과 함께 수사1과에서 일하는 여경 린쯔칭(林子晴, 왕정[王淨] 분)이다. 그녀는 예쁜 얼굴 때문에 경찰 홍보 포스터의 모델이 되기도 했었고 경찰로의 능력보다 외모를 인정받아 ‘꽃병’처럼 행사에서 꽃을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린쯔칭은 영화의 ‘얼굴마담’처럼 쓰이며 과장된 화장으로 우스꽝스럽게 등장해 여성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그녀는 영화 후반부에 들어 빌런 역할을 톡톡히 하며 소위 막장의 파토스를 형성해 낸다.

린쯔칭은 우명한이 잡으려던 마약조직의 두목 린샤오위안(林孝遠)과 결탁한 가짜 경찰이다. 그녀가 린샤오위안과 손을 잡았던 까닭은 어린 시절 린샤오위안이 파는 마약에 찌들어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복수의 방식은 경찰이 되어 수사 정보를 마약조직에 전하여 그들이 수사망을 피해 벌어들인 돈을 빼앗는 것이었다. 린쯔칭에게 붙잡혀 돈을 빼앗긴 린샤오위안은 어릴 때부터 자신과 손을 잡은 그녀가 수상하다고 느꼈고 “결국 네 어미와 네가 다른 것이 무어나”며 린쯔칭을 힐난한다. 린쯔칭은 린샤오위안의 두 손에 칼을 꽂아놓고 도망치다 사건 현장을 덮쳤다. 린샤오위안에게 붙잡힌 우명한과 수사1과 과장 장융강(張永康) 또한 해치려 한다. 장융강은 린쯔칭에 의해 마약조직 스파이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결국 린쯔칭은 <메마테바>에서 가장 악한 캐릭터가 된다. 영화가 외적으로 코믹 수사 소동극을 표방하고 있기에 절정 부분에서 범죄 조직을 물리치는 우명한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를 돕는 마오마오 귀신의 활약이 드러나 줘야 한다 해도 영화는 그러한 극적 설정과 파토스를 위해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다. <메마테바>는 여성 재현에 있어서 여성 혐오라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린쯔칭의 엄마가 방종하고 타락한 여성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살아

남기 위해 불법과 남성을 해하는 분열적이고 기괴한 인물이 된 린쯔칭의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린쯔칭은 그동안 남성 주체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영화와 문학에서 남성을 보조하는 여성이나(본드걸) 남성의 성적 대상에만 머물렀던 술한 여성 캐릭터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타자화된 여성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주인공의 활약이 돋보이는 영화에서 여성은 흔히 가부장제와 제도권의 주류 질서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여성상을 보여주며 필수적인 동행자가 되어 왔다.

그런데 린쯔칭은 자신의 태생적 환경과 사회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 자멸한 여성이다. 바바라 크리드(Barbara Creed)는 저서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¹³⁾에서 ‘여성 괴물’과 관련된 논의를 펼쳤다. 바바라 크리드는 ‘여성 괴물(Female Monster)’이라는 형용사적 표현은 여성의 본성이라고 믿고 있는 통상적 인식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가치 판단이 빚어낸 ‘이차적’ 속성임을 시사했다.¹⁴⁾ 또한 가부장제 전통 속에서 여성은 때때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로 취급되어 오며 이 같은 여성을 법의 경계 너머에 두고 악마 혹은 괴물로 형상화하는 서구의 뿌리 깊은 상상은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성 괴물’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 기저를 드러내는 사회적 구성물로 여성이 유아기에 형성하는 성 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만들어진다고 했다.

<메마테바>의 린쯔칭은 마약중독자인 엄마가 주사기를 꽂고 죽어간 모습을 목격한다. “2008년 5월 8일 찐충 임대아파트에서 우리 엄마는 당신 때문에(린샤오위안) 죽어갔어.”라는 그녀의 대사 뒤로 마약 조직의 보스와 손잡게 된 린쯔칭의 개인사가 그려진다. 그리고 영화는 린쯔칭이 마약 조직의 꼬나풀을 진압하는 척하다 뇌주는 장면, 수사1과 과장 장용강을 스파이로 모는 장

13)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도서 출판 여이연, 2008.

14) 최애영, 「여성은 왜 괴물로 형상화 되어왔는가? -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여성문학연구』 제21집, 2009, p. 21 참조

면, 위장 잠복 수사에서 직원에게 경찰의 진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누설하고, 마약 조직이 숨겨 놓은 돈다발을 가방에 담은 린쯔칭의 모습을 연이어 열거한다. 이같이 린쯔칭의 역사가 재구성되는 부분에서 영화는 갑자기 스릴러 장르물처럼 느껴질 만큼 심각한 분위기를 흠뻑 고취한다. 남성 중심의 상징계를 위협하는 여성이 장르적으로 소비되며 영화의 극적 효과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 캐릭터는 <메마테바>의 동성애 코드와 맞물려 한층 더 깊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남성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퀴어 장르물에서 남성 커플과 그 주변의 여성 인물들이 함께할 때 여성의 존재가 훼손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브로크백 마운틴>의 게이 커플 에니스와 잭의 부인들인 알마와 루린은 남편들의 성 정체성을 모른 채 결혼한다. 이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녀들을 소외시키는 남편들에 의해 상처받는다. 특히 루린의 경우 방탕하거나 잭을 욕죄는 여성 캐릭터로 등장해 게이 커플의 사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한국 드라마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2010)에는 태섭과 경수 커플이 등장하는데 경수의 부인 또한 그의 정체성을 모른 채 결혼한 후 뒤늦게 커밍아웃을 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운다. 타이완 영화 <영원한 여름>의 조나단과 세인 사이에 있는 소녀 캐리는 조나단과 사귀다 세인을 좋아하는 조나단의 성 정체성에 의해 버림받고 소외된다.

이처럼 남남 동성애 커플이 등장하는 퀴어 장르에서 여성은 종종 남남 커플들 사이에 놓여 남편을 다른 이성에게 보내줘야 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온전히 감내하는 여성으로 등장해 왔다. 사실상 퀴어물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차별을 지양하는 정신으로 만들어졌다손 쳐도 그 안에서 여성 인물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며 남성에게 버림받는 타자로 존재케 했다. 우리와 다른 이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또 다른 방식의 차별 속에 위치시키는 이중 억압의 구조 속에 놓인 캐릭터들을 양산해 온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마테바>의 린쯔칭은 관객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새로

운 가치를 지향하려는 영화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여성 인물이다. 이 같은 여성 인물의 재현은 주류 질서로부터 거부당해 훼손당한 성적 소수자들을 위무하고 그들의 취향과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다 또 다른 약자를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일과 다름없는 것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유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이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4. 섹슈얼리티 재현의 탈영토화를 기대하며

대중문화의 장에서 영화는 여전히 담론 설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관객들은 영화 속 인물의 외형과 언행을 따르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현실과 역사의 주조가 우리네 그것과 얼마나 닮고 다른가 파악하려는 열망을 갖는다. 특히 영화 속 개인의 섹슈얼리티 재현에 관한 것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하며 나와 재현 대상 사이의 거리를 탐색하려 든다. 안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현대 사회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말했다.¹⁵⁾ 섹슈얼리티는 나와 타인의 관계 문제이며 인간의 성에 부여되는 의미의 과부하, 위험한 열정, 이탈, 윤리학의 제 문제들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를 과열¹⁶⁾하기 때문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억압받아 오던 여성과 동성애자들은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매체 또한 그들의 문제를 재현하였다.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섹슈얼리티 논의가 점점 공적이며 정치적 의제와 관련되며 대두되었고 그것이 영상 매체들의 재현 윤리학 논의와 맞물려 퀴어 영화 비평, 페미니즘 영화 비평

15) 안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 변동』, 새물결, 1996, 10장 ‘민주주의로서의 친밀성’ 참조, 주유신, 「퀴어 정치학과 영화적 재현의 문제 - <지상만가>(김희철, 1997)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Vol.16, 2010, p. 123에서 재인용

16) 주15)의 글, p. 123 참조

등은 문화장에서 연이은 화두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재현과 사회 정치학의 관계와 쟁점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은 퀴어 장르일 것이다. 퀴어 장르물은 이성애자가 아닌 인간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 담론 및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려 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성애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유교문화권의 국가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퀴어 영화들은 여타의 매체들을 압도하며 대중에게 각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청률과 인터넷 댓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적 비평으로 비롯되는 대중적 소구를 의식한다면 퀴어 영화 텍스트 자체와 작가-감독을 탐구 대상으로 삼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작가는 “사회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통치의 하위 기능을 수행하는, 지배 집단의 대리인”¹⁷⁾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여 영화감독들 또한 사회적 매체를 만들어 내는 장본인이기에 문화장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구축하며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완의 젊은 감독 청웨이하오는 <마신자: 빨간 옷 소녀의 저주, The Tag Along 1,2>(2016-7), <영혼 사냥, The Soul>(2021), <연못괴담, The Pond>(2021)과 같은 공포 영화들을 만들어왔다. 또한 한국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Man In Love>(2014)의 타이완판 <맨 인 러브, 當男人戀愛時, Man in Love>(2021) 제작한 경력이 증명하듯 주로 장르물을 만들어 온 청 감독의 영화들은 인간의 보편적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을 대하게 되는 인물들의 성장 드라마나 멜로였다. 그런데 두 장르는 모두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며 사회 의제와 헤게모니를 구성해 왔다.

영화 <메마테마>의 우밍한은 성공 지향적이며 제도권 내부의 보편적 가치에 의지하는 인물이며 마오마오는 환경과 인간 평등, 섹슈얼리티 문제를 가시화하며 저항 담론을 구성하는 인물이다. 영화는 명확히 다른 영역에서 살아오

17)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 2, 거름, 2006, p. 22 참고

던 두 남성의 연대와 합치로 극단과 극단 사이 의제들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메마데바>의 미덕은 다수 대중과 소수자의 욕망을 다양한 장르 기제의 절합으로 탁월하게 묘사했다는 데 있다. 청웨이하오의 드라마는 기존 장르 문법에 충실하면서도 약간의 변주된 서사 전략이 가미되며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다루는 드라마를 동성애에 관한 뜨거운 논의를 전면 에 배치하거나 혹은 은폐, 논의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지 않았다. <메마데바>는 유쾌한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가족애, 가족애를 부각도록 보조하는 이성애자의 등장으로 사회 문화적 화두를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인식 시키려 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웅적 인물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멜로 드라마적 관습을 제쳐두고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사랑에 대한 인정을 구현해 낸 영화는 그렇게 인간애와 선한 의지를 믿는 다수 대중의 정서에 호소할 것이다.

그렇지만 <메마데바>의 '에둘러' 가는 재현 전략은 동성애에 관한 또 다른 차원의 논란과 여성 인물을 편향적으로 묘사하는 문제를 양산했다. 그동안 흥행 부진과 관객들의 외면이라는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퀴어 영화들이 동성애자의 현실을 엄숙한 태도로 담아 온 까닭은 그들에게 이중적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청웨이하오의 우회적 서술은 동성애자의 섹슈얼리티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불화와 같은 첨예한 문제를 봉합한다. 더하여 유일하게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악인 여성은 착한 남성들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장르적으로 소비한다. 우밍한과 마오마오의 개인사는 적절히 절합되며 훌륭한 남성 연대의 드라마로 완성되나 린쯔칭의 아픈 과거는 그녀가 무분별한 악녀로 재탄생되는 근거로 삼아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려 한 영화에서 또 다른 약자를 편향된 프레임 속에 가두고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한 격이 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섹슈얼리티와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재생산이다.

영화가 현실 진단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관념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메마데바>의 재현 양상은 분명 비판적으로 탐

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화가 대중의 경향과 의식을 교정하고 정치적 의제에 관해 교육하고자 하는 거대한 의지를 지니지 않았다고 해도 현실의 구현을 향한 진솔한 시각과 태도는 반드시 내재해야 한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남성들 간 연대(Male Bonding)를 중심에 두고 일종의 유사 버디 무비처럼 구성된 <메마테바>가 내포한 휴머니즘과 선함은 때때로 섹슈얼리티의 왜곡과 이에 따른 긴장으로 불가불 동성애 코드에 대한 응시와 쾌락을 발생시킨다. 또한 장르적으로 과잉된 여성 인물에 의해 드라마가 주조해 낼 수 있는 건강한 논쟁과 화두마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메마테바>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혹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갖는 고유성과 독자적 정체성을 일정한 궤도의 사회 문화적 의미 안에 고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영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원전 영화:

청웨이하오(程偉豪) 감독, <메리 마이 데드 바디, 關於我和鬼變成家人的那件事, Marry My Dead Body>(2022)

단행본: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 영화, 페미니즘, 정
신분석학』, 도서출판 여이연, 2008.

안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 변동』, 새물결, 1996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 2, 거름, 2006.

학술논문:

김경태, 「야오이를 전유한 동아시아 남성 동성애 영화 재고: <꽃보다 게이>, <열일곱 살의 하늘>,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를 중심으로」, 『영상
예술연구』 제19집, 2011.

이형숙, 「동성애 영화에서의 ‘보는 즐거움’의 정치학: <브로크백 마운틴>, <서양
골동양과자점 앤티크>, <쌍화점>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0
집, 2009.

주유신, 「퀴어 정치학과 영화적 재현의 문제 - <지상만가>(김희철, 1997)를 중
심으로」, 『영상예술연구』 Vol.16, 2010.

진성희, 「‘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변종 MCU의 탄생—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65집, 2021.

최상민, 「대중의 욕망과 드라마적 재현 - 김수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 」, 『드라마연구』 제36호, 2012.

최애영, 「여성은 왜 괴물로 형상화 되어왔는가? -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

이 -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여성문학연구』 제21집, 2009.

인터넷 기사:

김성찬, 「[기획]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추천작 소개③, '뉴웨이브 이후 대만 영화의 기수들' 초청전」

(『씨네 21』 기사,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1553)

이영재, 「편견에 경중 올리는 코믹 액션...영화 '메리 마이 레드 바디」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2160400005>)

이자연, 「[인터뷰] '메리 마이 레드 바디' 청웨이하오 감독, 새 세대의 출현을 포착하다」

(『씨네 21』 기사,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2809)

Abstract

Acceptable Ideals and Erased Reality Explored through Representational Methods in the Taiwanese Movie *Mary My Dead Body*

Jin, Sung Hee

Mary My Dead Body, which appeared in an era when movies pointed out the public's lack of gender sensitivity regarding the sexual identity of others and gradually emphasized attitudes of solidarity and equality, is a Taiwanese film with a special character. In a new way of representing male-male couples and in a way that differentiates it from movies with existing codes of homosexuality, *Mary My Dead Body* contains awareness of how to understand and acknowledge human sexuality and the unique tendencies of others. In this study, we discussed in detail what ideals society can accept and what reality it excludes by looking specifically at the way in which *Mary My Dead Body* reveals the union of homosexuals and heterosexuals and the family problems of homosexuals.

It is important for movies to lead to solemn discussions and reflections on reality in the field of popular culture, but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use what strategies to secure unique territory and communicate with a wider audience.

In this respect, *Mary My Dead Body*'s genre appeal and indirect narrative method are reducing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queer films and attracting interest. However, this mechanism of representation created the problem of alienating the reality of homosexuals again and portraying women as monsters who attack male-male couples. Therefore, even if a film has the will to correct the public's notions and leave a lesson on a specific issue, it cannot be authentic as art if it does not contain an honest perspective and sharp thinking about the object being represented. You will be able to see it through .

Key words : Movie *Mary My Dead Body*, homosexual code, queer film, sexuality, woman who becomes a monster, problem of representation, art of authenticity

투 고 일 : 2024. 7. 10. / 심 사 일 : 2024. 7. 15. ~ 2024. 8. 15. / 게재확정일 : 2024. 8. 20.